

안악3호분을 통해서 본 머리모양 연구

김민선⁺ · 맹유진^{*} · 이상은^{**}
경북대학 피부미용과 겸임교수⁺
신성대학 미용예술과 전임강사^{*}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교수^{**}

A Study on the Koguryo ancient mural paintings in the An-Ak 3rd ancient tomb, focusing on the hair styles

Min-Sun Kim⁺ · You-Jin Maeng^{*} · Sang-Eun Lee^{**}
Adjunct Prof., Dept. of Cosmetology, Kyungbok Collage⁺
Instructor, Dept. of Beauty Art, Shinsung Collage^{*}
Prof.,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2005. 7. 5. 접수; 7. 28. 채택)

Abstract

Hair styles, dresses and their ornaments are basic measures that show the trend of the times, the people and their life in both Eastern and Western societies. The history of a country could start or be extinguished at any time, but life goes on.

Koguryo was founded around Anno Domini and fell at 668 A. D. What was Koguryo people like? How was their hair style and costume? This study aims to respond those questions.

The Koguryo ancient mural painting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e Jip-An region and the Pyon-Yang region. Among the paintings found, that in the An-Ak 3rd ancient tomb at the Pyon-Yang region is the biggest and the most splendid. It is a figure genre painting, which contains a kitchen, a rice mill, a stable, a barn, a garage, etc. Those places illustrate the way of life at the time. The painting also comprises a man with a crown, who is seen as the king and owner of this tomb. The woman with a vertically designed hair style is perceived as the queen. A highly guarded and decorated royal parade is also presented in detail.

The hair styles and costume evidence in the An-Ak 3rd ancient tomb are not seen in the paintings of the Jip-An region. This study inquires in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yon-Yang and Jip-An regions through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those areas. Nevertheless, it could prove tentative to confirm the owner of the An-Ak 3rd ancient tomb with the only evidence of the words found in the wall of the tomb. It is the author's intention to study and analyse further.

Key Words: Koguryo ancient tomb(고구려 고분벽화), An-Ak 3rd ancient tomb(안악3호분),
Hair style(머리모양), Koguryo costume(고구려 의복)

⁺Corresponding author ; Min-Sun Kim

Tel. +82-10-7250-0766, Fax. +82-2-711-5631

Email : kbeauty@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고구려는 서기 전후 무렵에 건국하여 668년에 멸망한 고대국가의 하나이다.

고구려가 처음 일어나 곳은 압록강 중류의 독로강 및 혼강 일대로 첫 수도는 졸본이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 왕대에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국내성에 도읍한 기간은 400여년으로 이 기간 동안에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그 뒤 427년(장수왕 15년)에 평양성으로 천도하였으며 이후 전성기를 맞이하여 동북아 시대의 패자로서 융성하였다. 5세기 이후에는 동북아 시대에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였고 중국 왕조 및 북방의 유목 국가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움직이는 중심국가의 하나로 그 역사적 자취가 뚜렷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705년 동안 모두 28명의 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하고 있다¹⁾.

고구려는 지역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북방민족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불교와 도가사상 등 외래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진취적인 독자 문화를 이룩하였다. 거침없는 기상과 상무적인 정신을 보유한 고구려인들은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天下觀)을 가졌고 천신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영혼불멸을 믿었으며,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무덤 축조에 고구려 고분벽화라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안악3호분은 고구려 벽화고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완벽한 형태의 봉토석실묘이며, 고분 안에 묵서명(墨書銘)이 있고, 다양한 내용이 담긴 생활 풍속도가 그려져 있어 대단한 가치를 갖는 무덤이다.

안악 3호 무덤(安岳3胡粉)은 주로 생활풍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인공이 살았을 때의 저택과 생활모습을 표현하였다. 문 칸에는 문지기 장수들을, 앞 칸 남쪽 벽과 동쪽 벽에는 무사들과 의장대, 고취악대, 수박회를 배치하였으며 서쪽 벽에는 <장하독(帳下督)>과 약 70자의 묵서가 있다. 서쪽 곁칸에는 정사(政事)를 보는 무덤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있다. 동쪽 곁칸에는 주인공 생전의

생활과 관련된 부엌, 방앗간, 마구간, 외양간, 차고 등을 생생하게 그렸다.

회랑 동쪽 벽에는 위풍당당한 250명이 넘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행렬도가 있고, 안칸 뒤쪽의 회랑 벽에는 여러 층의 누각 그림을 그렸다. 행렬도의 주인공은 소수례를 타고 가고, 성상번(聖上幡) 깃발을 들었으며, 의장을 갖춘 문무백관과 고취악대가 무사의 호위를 받으며 나아가는 모습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가장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안악3호분은 고구려의 머리모양 연구에 귀중한 보고라고 보여지며, 남·녀 또는 신분이나 지위에 의한 머리모양연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안악3호분의 머리모양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고구려는 이른 시기에 이미 독자적 벽화 세계를 형성하였고 중국지역내의 문화 중심지들과 대등하게 교류, 발전하면서 독립적인 세계를 구축하였다.

안악3호분을 중국에서 망명한 동수의 묘이고 BC. 108~313년에 걸쳐 만들어진 중국계 유민의 묘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는 견해와 북한에서는 현재 고국원왕(故國原王)의 무덤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선행연구에서 미천 왕릉으로 보는 또 다른 견해가 있다. 이것은 안악3호분 묵서명과 무덤 양식의 해석 차이에 따른 연구자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미천왕릉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며, 이에 안악3호분을 통하여 머리모양과 관모 그리고 복식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고분벽화 인물풍속도에 나타나는 머리모양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안악 3호 무덤(安岳3胡粉)은,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고구려 벽화무덤으로, 무덤에서 발견된 명문에 의해 357년에 축조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4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고분벽화는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유산으로서,

무덤축조와 장의 의식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고구려인들의 생활풍습 및 의식구조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고분벽화 인물상에 보이는 장신구는 고구려인들의 생동하는 모습 가운데 쓰고, 꾸미고, 매고, 신고 한 양식이 표현되어 있다.

본 연구는 안악3호분에 나타난 고구려 머리모양 및 관모, 복식에 대한 연구로 문헌과 벽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안악3호분에 나타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신분에 따른 머리모양을 연구하고자 한다.

안악3호분은 4세기로 여겨지는 고구려 초기의 벽화 고분으로 위진 시기 벽화 고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보이고 있다. 봉토석실분이라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무덤건축이라고 해도 각저총과 안악3호분과 같은 이른바 초기 벽화 고분에서 보이는 고구려의 독창성은 초기부터 중국의 것을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개체로서가 아니라 대등하거나 독립적인 입장으로 자신들에게 맞게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고분의 주인공에 대해서 모용선비에서 망명한 동수의 무덤이라는 설과, 미천왕 혹은 고국원왕의 무덤이라는 설로 나누어져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서쪽 방 앞면 벽에 그려진 무사의 머리위에 68자에 이르는 동수에 대한 묵서명 때문인데 동수의 묘라고 보기에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많다고 본다. 미천왕 혹은 고국원왕으로 보는 견해에 동의하면서 이를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머리모양의 변천은 복식의 변천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가 없다. 때로는 복식에 의해 머리형이 바뀌어졌고, 머리모양이 새로워지면서 복식의 모양이 바뀌어 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미 정설화 되어 있는 사실, 즉 삼국시대 우리의 복식이 북방계통과 한나라 계통의 영향을 받아 토착화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선 염두 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머리모양이 복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연구자들 중엔 옷차림에 앞서 머리를 더 중요시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연구자들은 큰 비중으로 다루기도 한다.

이에 생활사의 한부분인 머리모양을 복식사적 배경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물풍속도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머리모양을 첫째,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남자는 관모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여인들의 머리모양과 장식을 살펴보고 머리모양과 장식에 따른 신분과의 관계, 머리모양과 연령, 혼인유무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셋째, 안악3호분에 나타나는 머리모양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구려 고분벽화 전집, 고구려의 발견, 한국 고대 복식사, 한국의 미, 고구려 연구, KBS 고구려 고분벽화, 한국여인의 발자취, 그 밖에 고구려 고분벽화를 연구한 문헌 및 논문을 기반으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안악3호분의 시대적·역사적 배경

안악3호분이 건설된 AD 357년을 전후로 한 고구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천왕 때 부터 살펴봐야 한다.

AD 300년에 재 15대 고구려 왕위에 오른 미천왕은 AD 302년에 서진의 현도군을 공격하여 8천여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평양으로 옮겨온다.

미천왕 12년(311년) 요동군 서안평현을 공격하여 빼앗고 313년 낙랑군을 침범하여 낙랑군을 멸망시키고, 314년 대방군을 공격하여 멸망시킨다.

대방군은 낙랑군과 마찬가지로 중국측 행정기관이었는데 이 때 멸망하게 된다.

낙랑, 대방군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은 중국측 문물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했고 이 지역의 농업 생산력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15년 현도성을 공격하였고, 320년(미천왕 21년)이후 휴전상태가 된다.

331년 16대 고국원왕이 왕위에 오른 후 평양성을 증축하고 환도성을 수리하여 일시 수도로 삼는다.(342년)

고국원왕 12년(342년) 신흥강국으로 체계를 갖춘 모용선비가 고구려로 쳐 들어왔고 고구려의 수도가 함락되면서 고국원왕의 어머니인 주씨왕후를 포로로 삼고 무덤을 파서 미천왕의 시신을 가져갔다. 환도성은 헐렸고 포로로 남녀 5만여 명이 사로 잡혔다.

모용선비는 349년 국호를 연(전연)이라 칭하고 만리장성 이남으로 진출한다.

전연의 침략 다음해에 미천왕의 시신을 돌려받았으나 주씨왕후는 13년이 지난 고국원왕 25년(355년)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고국원왕은 환도성이 파괴되자 평양 동항성으로 수도를 옮기는데 동항성이 오늘날의 평양이라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는 미천왕 때 획득한 황해도 지역에 대한 개발을 서두르게 되는데 본래 이 지역은 중국세력이 넘어와서 자리 잡은 곳으로 외래적인 요소가 많았다. 이 지역이 고구려의 지배와 관련하여 논란이 문제되고 있는 황해도 안악군이다.

안악3호분은 고구려 벽화고분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완벽한 형태의 봉토 석실묘이며, 묵서명이 있고 다양한 생활풍속도가 있어 대단한 가치를 갖는다.

이 고분의 주인공이 모용선비에서 망명한 동수의 무덤이라는 설과 미천왕, 혹은 고국원왕의 무덤이라는 설로 나누어져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묵서명의 내용은 “영화 13년(357년) 10월 26일에 사지절 도독군사 평동장군 호무이교위이며 나랑상이며, 창려, 현도, 대방태수요, 도향후인 유주요동군 평곽현의 도향 경상리 출신 동수는 자는 安인테 나이 69세에 관으로 있다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자치도감』에 서기 336년 모용선비에서 반란을 일으킨 모용인 곽충과 동수가 고구려로 망명왔다. 망명인 동수가 고구려에 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고구려가 통재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자체세력을 가졌다고 볼 만큼 고구려가 약한 나라는 아니었다.

당시 고구려는 남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망명객에게 황해도 지역을 내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덤 내부에 그려진 대행렬도는 (250명 정도로 추정) 무덤주인의 지위를 짐작케

한다. 또한 대행렬도의 성상번이라는 왕의 깃발과 무덤주인은 『수서』에서 보이는 고구려왕의 관모인 백라관을 쓰고 있다.

고구려는 331년에 죽은 미천왕의 시신을 모용선비에게 훼손당해 못쓰게 되자 343년 시신을 돌려받은 후에 새로이 그가 개척했던 황해도 지역에 무덤을 모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55년 주왕후가 전연에서 귀국한 후 죽게 되자 그의 무덤에 함께 묻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무덤은 부부 공동의 무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왕후가 죽을 때 동수가 함께 따라 죽는 신하로 묻힌 것이라 여겨진다. 고구려에서 신하가 왕과 함께 죽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고 동수는 살아서 무덤에 묻혔다고 보여 지며, 그렇게 때문에 글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

동수의 묘지명은 무덤 주인의 초상화 곁에 쓰인 것이 아니라, 장하독이라는 임금을 모시는 고위급 시종의 머리위에 쓰였다. 묘지명과 글자도 빼뚫고 정성들어 쓴 글이 아니다.

안악3호분이 축조될 전후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본 바로는 무덤의 주인공은 미천왕과 그의 부인 주왕후로 보여 진다. 주왕후의 모습은 적에게 끌려갔어도 품위를 잃지 않은 당당한 모습이다. 반면 미천왕의 모습은 그림을 그렸다가 지웠다가, 다시 그린 흔적으로 보아 미천왕의 생전 모습을 보지 못한 것으로 유추된다²⁾.

무덤의 많은 내용이 고구려의 사회 풍습을 묘사하고 있어 본인은 미천왕능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2. 안악3호분의 복식사적 배경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복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복식은 그것을 발생시킨 그 시대가 갖는 역사의 모든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식은 정치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적인 요소를 내포하며, 여기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적인 요구와 가치 기준까지도 함께 담겨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복식은 고구려의 역사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고구려 사람들의 의식이 만들어 낸 것이라 하겠다.

안악3호분이 축조된 4세기 중엽 안악지방은

고구려의 확고한 통치체계가 서있는 공고(鞏固)한 후방에 속하였다. 안악지방은 벌써 일찍부터 고구려 세력이 강한 영향을 미치던 곳이고 3세기말 4세기 초에 낙랑국, 대방국을 완전히 통합한 이후 시기에는 고구려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중심지역이 된 곳이었다.

고구려는 313~314년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하면서 평양지역을 확보하게 되는데, 장기간 중원 문화를 향유한 이 지역에는 고구려와 문화적 전통을 달리하는 토착 호족세력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고구려는 이들 집단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감안하여 일시에 중국풍 복식을 금하고 고구려 복식으로 개혁하도록 강압한 것이 아니라, 초기에는 그들의 복식문화를 묵인해 주다가 점차적으로 세력기반을 약화시키고 자연스럽게 고구려 관인 사회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평양지역 지배세력이 큰 저항 없이 고구려 고유복식을 받아들일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평양지역에서 확인되는 두루마기는 이 지역의 한화(漢化)된 토착 세력집단이 고구려 관인사회 내부로 편제되기 이전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착용한 의복으로 볼 수 있으며, 5세기 후반을 하한으로 두루마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이때를 기점으로 평양지역에 고구려 고유 복식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³⁾.

안악3호분의 벽화를 보면 귀족들은 바지저고리 위에 화려한 포(袍)를 입었으며 평민들은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다. 고구려의 기본적인 복식인 삼(衫), 유(襦), 포(袍), 고(袴), 상(裳)과 허리띠 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옷깃과 겹옷

고구려에서 입었던 옷깃과 겹옷은 크게 삼(衫)과 유(襦) 및 포(袍)로 구분된다. 남자들은 옷깃으로 삼을 입고, 여자들은 유를 입었으며 포는 긴 길이와 넓은 소매를 특징으로 하는 겹옷으로 남녀 모두 입었다.

일반적으로 고대 한국복식의 성격을 임형(襟形)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 한복(漢服)계통의 요소와 북방계 호복계통의 요소로 구분해 왔다. 우임은 중국 한복계통의 요소이고 좌임은 북방계 호복계

통의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벽화들을 보면 곡령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고구려 복식의 임형(襟形)은 대체로 좌임·우임과 함께 합임직령(合襟直領)·곡령(曲領)이 혼용되었다(그림 1, 2, 3, 4, 6, 7, 15, 16, 17, 18 참조).

그러므로 고대 한국의 복식에서 우임은 중국한복 계통이고 좌임은 북방호복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계통론과 변천론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⁴⁾.

2) 바지

안악3호분의 장하독, 의장기수, 부철수, 뿔나팔부는 사람 모두 통이 큰 바지를 입은 것으로 보아, 고구려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통이 큰 바지를 입었음이 확인된다. 시중군, 기마인 등은 보통 폭 혹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금 좁아진 바지를 입었지만 통이 큰 바지의 형태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고구려의 속바지와 중국 및 북방지역의 속바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고구려는 여자만이 속바지를 입었지만 중국은 남녀 모두 입었다. 고구려와 고대 중국은 모두 포과 유의 아래에 속바지를 입었는데 고대 중국은 유의 길이가 매우 짧고 속바지의 도련에 선을 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는 저고리의 길이가 길며 모든 속바지의 도련에 반드시 선을 둘렀다. 북방지역에서는 여자들도 주로 바지를 입었으나 고구려의 여자들은 치마 안에 반드시 바지를 입거나 바지와 함께 속바지를 복식의 주요 형제로 하고 있다⁵⁾.

안악3호분 행렬도의 두 여인은 치마 아래 속바지를 입었다.

3) 치마 (裳)

상(裳)은 치마를 말하는 것으로 치마 중에서도 주름을 많이 잡은 것은 군이라고 하였다. 안악3호분의 묘주 부인은 군을 입고 부부의 여인은 상을 입었다.

4) 허리띠 (帶)

안악3호분의 묘주는 깃의 선(襖)보다 폭이 넓은 대(帶)를 두르고 있다. 이 검은 대는 가운데와 좌우 양쪽 3가닥이 같은 모양으로 늘어져 있다. 그리고 그 검은 대 안쪽에 폭이 넓고 허리에서 묶어 길게 늘어뜨린 대를 맺다. 묘주의 오른쪽에 서있는 신하는 직물로 만든 긴 대를 엮어 길게 늘어뜨렸을 뿐 검은 대를 매지 않았다. 덕흥리 고분의 묘주도 안악3호분 묘주와 같은 검은 대를 착용하였다. 덕흥리 고분의 묘주는 묘주도에서 검은 대를 맺으나 실내 생활도에서는 매지 않았다. 『의예(儀禮)』 사상예(士喪禮)의 경대(經帶)에 대하여 정원(鄭元)은 '검은 두터운 사직물로 만든 대'라고 하였다. 안악3호분과 덕흥리 고분의 묘주가 맨 검은 대는 바로 경대일 것이다. 안악3호분의 묘주는 경대 이외에 희고 비교적 폭이 넓은 대를 두 가닥 길게 늘어지도록 했다. 이 대가 『구당서』와 『신당서』에서 말하는 '백피소대(白皮小帶)' 일 것으로 생각된다⁶⁾.

5) 신

4세기에서 6세기까지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신분이나 관직에 관계없이 신을 신었고, 안악3호분 묘주부인의 신만이 붉었을 뿐 다른 신들은 검은 색이거나 흰색이었다. 이는 고구려에서 신분이나 관직에 따라 신의 색을 구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⁷⁾.

북방의 기마인들도 화(韉)을 신었는데 고구려가 북방의 영향을 받았다면 고구려의 병사들도 신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악3호분등의 행렬도에서 보이는 보병과 기마병들 대부분이 리(履)를 신고 있을 뿐 화(韉) 또는 화(韉)를 신은 사람이 없다. 다만 보병 가운데 일부가 각반(脚絆)과 같은 것은 신고 있을 뿐이다.

만일 고구려가 북방민족과 문화의 흐름을 같이 하였다면 화는 일반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벽화 등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고구려 등 한민족이 북방민족과 또 중국과 다른 고유한 문화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⁸⁾.

Ⅲ. 본 론

1.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남자의 머리모양

고분벽화에 나타난 남자의 머리 대부분이 머리수건이나 관모(冠帽)를 쓴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모양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렇지만 남자의 머리모양은 대체적으로 상투가 일반적이었다⁹⁾.

지위고하에 따른 규제가 보이지 않는 위복과는 달리 관모에 있어서는 대가와 주부는 책을 쓰고 소가는 절풍을 쓴다는 이분법적 제도가 발견됐다.

먼저 대가, 주부, 소가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가와 소가라는 것은 세력기반의 대소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최고 관직을 역임할 수 있는 관등은 대가가 차지하였고 사자이하의 관등은 소가급 이었다¹⁰⁾.

따라서 대가는 책을 쓰고 소가는 절풍을 쓰도록 한 것은 위계상의 차이를 관모로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주부는 군사 활동에 있어서 지휘부를 이루거나 왕의 측근으로 활동하였다¹¹⁾.

1) 관모 (冠帽)

관모(冠帽)의 발생은 머리를 정리하고 추위, 눈비를 피하기 위한 자연발생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여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발전하였다.

고구려의 관은 투각(透刻)된 선이나 형태 등에서 민족성을 반영하듯 진취적이고 웅장하며 호방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고구려에서 사용한 문양(紋樣)은 대체로 식물문이나 자연현상 즉 바람, 불 등을 매우 동적으로 구성하여 투각만으로 만들어진 관을 만들어 썼다. 그 예로는 초화문(草花紋), 인동문(忍冬紋), 화염문(火燄紋), 운문(雲紋)등이 있는데 특히 화염문(火燄紋)에 사용된 선은 대체로 힘이 있으며 선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어 간결하면서도 웅혼한 느낌을 주고 있다. 관이나 관식(冠飾)의 대부분은 간단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한 장식은 없으나 전체적인선이나 모든 모양들이 간결한 마무리를 짓고 있어 고구려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¹²⁾.



〈그림1〉 안악3호무덤 문관(부분), 고구려고분벽화. 조선일보사 (1985), p.3



〈그림2〉 안악3호무덤 부월수(부분), 고구려고분벽화. 조선일보사 (1985), p.3



〈그림3〉 안악3호무덤 시종(부분), 고구려고분벽화. 조선일보사 (1985), p.3



〈그림4〉 덕흥리 고분벽화 13군 태수(부분), 고구려고분벽화. 조선일보사 (1985), p.55

금관에 대해서는 중국 사서인 『당서(唐書)』 동이열전(東夷列傳) 고구려조에 ‘대신은 푸른색의 얇은 비단관을 쓰고 버금가는 벼슬아치는 붉은색 비단으로 만들어 두개의 새의 깃을 꽂고 금으로 테두리를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금은으로 관을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민족은 두식(頭飾)을 일찍부터 햇빛과 빔을 가리는 용구, 방한용, 신부장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관모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변형모(弁形帽)이며 이 쓰개가 스키타이계임을 나타낸다. 변형모를 가리키는 기록에는 절풍(折風), 소골(蘇骨), 변(弁)이 있다.

① 책(幘)

책은 수건을 머리에 질끈 매는 형태에서 생겨난 듯하다. 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을 가리는 것을 방

지하거나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하여 머리위에 테를 돌리듯 고정시키는 수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책은 주로 문관이나 무관의 의례용 모자로 사용되었으며 대체적으로 3종류의 책으로 구분된다.

문관용 책(개책)〈그림1〉은 앞부분이 테두리보다 약간 높으며 그 뒷부분이 한층 높아진 형태로 앞부분이 모자테보다 한 단 높고, 높은 뒷부분이 두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구부러진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의 책은 안악3호분에 나타난 기실(記室), 성사(省事), 문하배(門下拜)와 안악3호분 회랑에 그려진 대행렬도 일부분을 살펴보면 뒤 운두가 솟은 책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책에 쓰인 색깔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말을 탄 무관은 검은 책을, 어깨에 도끼를 걸치고 걸어가는 무관〈그림2〉은 붉은 책을 썼다. 그리고 어깨에 활을 걸친 채 걷고 있는 오른쪽의 무관은 검은 책을 쓰고 있어 주로 색깔에 따라 무관 내의 신분 및 지위의 차이와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대체로 하급 무관이 붉은 책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책은 안악3호분의 시종들이 쓴 것〈그림3〉처럼 앞부분이 모자의 테보다 한단 높고, 뒷부분은 앞부분 보다 한 층 높게 앞으로 구부러진 형태를 띤 종류와, 약수리 고분 등의 인물 등이 쓴 것처럼 모자에 둘레가 있고 뒤가 뾰족하게 솟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후한서』에 대가주부는 책을 쓰고, 소가는 절풍을 썼다고 하니, 책은 절풍보다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다.

책은 우리 쓰개 중에서도 민족적 특성이 강한 것으로서, 중국의 책과는 달리 애초부터 독립적인 관모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책은 중국의 책에 비하여 보다 경쾌한 형상으로 고구려 독자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용도(用途)와 신분에 따라 책의 색을 구분한 예가 있는데, 고구려 벽화에도 대부분 흑색이지만 안악3호분에 적색의 책이 나타나 있는 즉, 색깔에 의한 신분상의 차이는 고구려의 책에도 반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¹⁴⁾.

고대 한국의 책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는 안악

3호 고분벽화와 덕흥리 고분벽화<그림4>에 보이는 책들이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다. 그리고 이들 책이 관과 함께 중국의 것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제출되며 이 고분의 묘주나 국적 등은 중국계의 것으로 추정한다. 안악 3호 고분벽화에는 2가지 종류의 책이 보인다. 하나는 뒤의 이(耳)부분이 올라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耳)부분이 높게 굽어져 올라간 것이다. 이 책들은 중국이나 북방지역의 양(梁)이나 수(收)가 있거나 옥(屋)의 부분이 크게 올라오거나 또는 가사관(加沙冠)이 덧붙여 있는 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책으로 버섯모양으로 앞에서 보면 뒤쪽이 솟아올랐고 옆에서 보면 뒤쪽이 삼각형이 되어 그 변두리가 매우 뾰족하게 솟아 보인다. 이런 모양의 책은 안악3호분의 장하독(帳下督)과 부월수(斧鉞手), 의장기수(儀仗旗手), 전리(戰吏) 그림에서 나타나며 주로 무관이나 전리, 관원들이 썼던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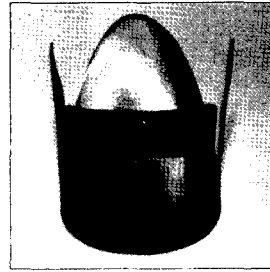
위와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구려 사회에서 책은 적어도 일정한 신분이 있던 사람들이 머리에 썼던 것으로 보인다.

② 절풍, 소골

절풍, 소골은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우리나라 관모 명칭이며, 고구려 독자의 쓰개이다.

고대 한민족은 고조선 시대부터 변(弁)과 책(幘) 및 절풍(折風)을 한반도와 만주의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여 왔다. 고구려의 백성들은 변을 쓰고, 대가(大加)와 주부(主簿)는 모두 중국의 책과 비슷한 관을 쓰며 소가는 절풍을 쓰는데, 고구려의 대가와 주부의 관은 중국의 책과 비슷하나 뒤에 늘어뜨리는 것이 없어 중국의 책과 구분된다. 또한 절풍의 모습은 변과 같고 책이라고도 부르며, 책과 절풍은 옛날 변의 남은 모습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책과 절풍은 변의 모습으로부터 변화를 갖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¹⁵⁾.

절풍은 변에서 변형된 것으로 윗부분이 둥근 것과 각이 진 것의 두 가지로 나누이며, 이 중 윗부분이 둥근 절풍은 겉 부분에 검은 색의 털이 둘러지고 그 속에 윗부분이 둥근 모자가 씌워진<그림 5> 이중구조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고구려에서 남자들은 모두 변과 비슷한 모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림5〉 절풍, 한국복식도감, 한국방송사업단 (1986), p.65

절풍을 쓰며 귀천에 따라 차이가 있게 새 깃털을 꽂았는데 사인(士人)은 새깃 두 가를 더 꽂는다고 하므로 일반인들도 절풍에 새의 깃털을 꽂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용총 수렵도의 일부 기마인이 절풍에 새의 털을 가득히 꽂은 모습과 무용도의 무용하는 사람이 절풍에 몇 가닥의 새털을 꽂은 모습 등에서 새의 깃털을 두 개 꽂으면 선비의 절풍이 되고 귀인은 자춧빛의 얇은 비단을 사용하여 만들고 모두 금은으로 장식하였다. 벼슬의 등급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또 새의 깃털을 꽂아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절풍은 뒤 없는 머리싸개의 형식을 가진 고구려 독자적인 관모라 할 수 있다¹⁶⁾.

③ 조우관(鳥羽冠)

조우관(鳥羽冠)은 절풍에 아름다운 새의 깃털이나 짐승의 꼬리털을 삽입하여 멋을 낸 모자이다. 무용총의 사냥도에 나오는 말 타고 활 쓰는 무사들이 머리에 쓴 것이 바로 조우관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귀족들이 사용했다. 고구려 벽화 중에 많이 보이며 귀족들은 금은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하급관리는 천연조우를 꽂거나 조우장식이 없는 절풍을 사용했다.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조우관의 전형적인 형태로는 용강군 쌍영총 연도서벽과 동벽의 인물도에 보이는 관모인데, 검은 새의 깃 두 개를 흰 관모의 옆에 꽂아 수식하고 있다. 조우관에는 새의 깃과 꼬리털을 혼용했고 꼬리털을 사용할 때는 삭모(藥毛)처럼 한 뭉치를 꽂아 꾸민 것으로 보인다. 새의 깃꼴의 관식은 고구려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백제, 신라를 비롯해 아시아 북방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도 유행한 풍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7>.

2) 덧관

벽화에는 책같은 관을 쓴 위에 비치는 관을 덧



〈그림6〉 안악3호무덤 남주인공(부분),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일보사 (1985), p.1



〈그림7〉 무용총, 널방 원벽 벽화내부, 사냥꾼, 고구려고분벽화. KBS 한국방송공사 (1994), p.54

쓴 그림이 여러 개 보인다. 북한학자들은 『고구려문화』에서 뒷관이라고 불렀다.

① 백라관 (白羅冠)

왕은 5채로 된 옷을 입고 흰색 라(羅)로 만든 관을 쓰며 가죽으로 된 허리띠에는 모두 금테(금단추)를 두른다. 대신은 청색 라(羅)로 만든 관을 쓰고 그 다음은 진홍색 라로 만든 관을 쓰는데, 두 개의 새깃을 꽂고 금테(금단추)와 은테(은단추)를 섞어 두른다.(구당서 권 220열)(그림7)

이 두 기록의 내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라관의 모습이 확인된다. 고구려왕의 관은 흰색 라로 만들어지고 그 위에 금으로 테를 두르거나 금장식 단추로 장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혜문관(惠文冠)등을 매우 성근 사(紗)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고분벽화 등에서는 그물로 표현했으나, 고구려에서는 비교적 고운 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악 3호 고분벽화의 주인공이 쓴 백라관은 그물로 표현되지 않았다¹⁷⁾.

왕의 관은 그 실제 예가 안악 3호 고분벽화 주인공에서 확인된다. 안악 3호 고분벽화에 보이는 주인공의 남주인공이 쓴 관을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흑색의 책 위에 흰색의 라로 만든 뒷관을 쓰고 있는데, 관의 앞이나 부분에는 금색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이 테는 또 다시 이(耳)의 가운데 부분에서 위로 연결되어 있다. 관의 끈이 귀의 뒷부분으로부터 내려와 턱에서 묶여져 포(袍)의 옷고름 위까지 내려와 있는데, 끈의 끝부분은 큰 단추모양의 화려한 장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 무관이 쓴 관에 연결된 끈들은

5촌(寸)(약 15cm)으로 제한하였다. 이 같은 요소들은 안악 3호 고분벽화에 보이는 주인공이 쓴 관이 고구려왕이 쓴 백라관임을 알게 한다¹⁸⁾.

② 청라관, 비라관

대신은 청색 라로 만든 관을 쓰고, 그 다음 관리는 진홍색 라로 만든 골소(骨蘇)를 쓰는데 두 개의 새깃을 꽂고 금테와 은테 또는 금장식 단추나 은장식 단추를 섞어 둘렀다.

『구당서(舊唐書)』 고려전에는 ‘옷에 복식을 하되 왕만은 오색 비단을 사용하고 관은 비단 백라(白羅)로 만들었고 더욱 관과 띠에 금장식을 하였으며 벼슬이 있는 귀한 사람은 청라(靑羅)로 만들어 썼고 다음은 역시 비단으로 비라(緋羅)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새 날개를 꽂았으며 금은 장식을 하였다.’ 고 하였다. (구당서, 권 199열전 고려전)

덕흥리 고분벽화나 쌍영총 주인공의 청라관이 섬세한 그물로 표현되는 것은 왕관인 백라관 보다 성근 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관모를 쓰고 있으며, 책과 건의 착용이 많았다. 쌍영총의 승려는 종교적 이유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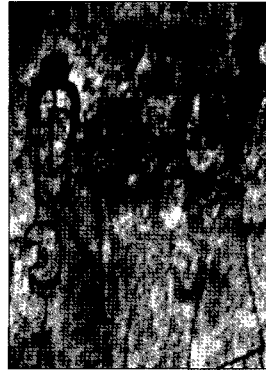
고구려 남자들은 공사로 모일 적에 신분에 따라 비단, 금, 천 등으로 만들거나 장식한 관모를 착용했다. 문관이나 무관의 의례용 모자로 사용된 책은 앞서 설명했듯이 머리가 흘러내려 얼굴을 가리는 것을 방지하거나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테를 두르듯이 고정시키는 수건의 일종으로 적어도 일정한 신분에 있었던 고구려인들이 썼던 것으로 보인다. 관은 머리에 덮어쓰는 덮개의 일종으로 고분의 남자 주인공은 대부분 관을 쓴 것으로 보아 관은 책에 비하여 신분이 높은 계층에서 썼던 것으로 보인다. 대개 고구려의 왕은 백라관, 관직이 높은 사람은 청라관, 그 다음은 비라관을 썼다. 그리고 건은 천으로 두발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싸고 뒤에서 묶은 것으로 흑색계통의 건을 착용했으며 신분이 낮은 마부, 기수 등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조우관은 절풍, 라관 등의 관모에 새 깃을 꽂아 장식한 것으로 좌우 한 개씩 꽂거나 두정부 가운데에 여러 개의 새 깃을 꽂아 장식한 것으로 여러 개의 새 깃을 꽂은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투구에



〈그림8〉 환계, 안악3호분무덤,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5), p.5



〈그림9〉 엷은머리, 무용총,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5), p.216



〈그림12〉 엷은머리와 쌍상투머리,
덕흥리 고분벽화,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5), p.78



〈그림13〉 채머리, 무용총,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5), p.216



〈그림10〉 묶은중발머리,
무용총,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5), p.216



〈그림11〉 푼기명머리, 삼실총,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5), p.208

꽃은 것과 금속제로 만든 조우관도 있었다. 절풍은 위가 뾰족한 세모꼴로 활동하기에 간편한 머리쓰개이다.

2.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여자의 머리모양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살펴보면 고구려 여자들의 머리모양은 매우 다양하다. 환모양으로 틀어 올린 환계(힐자계)〈그림8〉, 머리카락을 뒷머리부터 앞으로 감아 올려 깎트머리를 앞머리 가운데에 감아 꽃아 엷은머리〈그림9〉, 머리카락을 뒤에서 낮게 묶은 중발머리〈그림10〉, 양쪽 귀 옆의 머리카락을 늘어뜨리는 푼기명머리〈그림11〉, 이마 가까운 곳에 좌우로 상투를 틀어 올린 쌍상투 머리〈그림12〉, 뒤로 머리를 내려뜨린 채머리〈그림13〉 등 종류도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 벽화의 그림을 감상하다 보면 대체로 묘주인과 함께 있는 그 귀부인들과 그 옆에서 시중을 드는 궁중 시녀들은 모두가 높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허드렛일을 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낮은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높은 머리는 궁중에서 비교적 신분이 높은 시녀들의 머리 형태이고 낮은 머리는 미혼여자나 낮은 신분의 여자머리인 것으로 보인다.

엷은머리는 머리카락을 뒷머리부터 앞으로 감아올려 깎트머리를 앞머리 가운데에 감아 꽃은 것으로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시집을 간 부녀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머리모양이다. 안악2호분에 나타난 엷은머리는 변화를 주어 머리술이 풍성하게 보이게 했으며, 삼실총에 나타난 것은 고분벽화에 나타난 여자의 머리모양 중 가장 맵시었다.

덕흥리 고분 벽화분에는 엷은머리와 쌍상투머리모양이 보인다. 앞의 두 시녀는 엷은머리를 하고 뒤의 두 시녀는 이마 가까운 곳에서 좌우로 상투를 틀어 올린 머리모양으로 쌍상투머리의 모양이 나타나 있다.〈그림12〉

그리고 머리카락 어깨 높이로 잘라 두정부에서 후두부까지 내려오면서 뒷머리에 낮게 묶은 중발머리는 고분벽화 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비교적 많이 유행했던 머리모양이다. 무용총 주실벽화 주방도에서 식사를 나르는 여인과 수산리 벽화의 시녀 등에 잘 나타나 있다. 또 고구려 고분벽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머리모양인 푼기



〈그림14〉 건괘, 각저총,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9), p.204

명머리는 좌우 뺨 곁으로 머리카락의 일부를 늘어뜨린 것이다. 흔히 명머리는 모든 기본적인 머리모양, 즉 고리튼머리, 엷은머리, 중발머리 등에서 가지를 친 머리모양이다. 삼실총 제1실의 좌벽에 시종하는 여인은 중발머리에서 양옆의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흔히명머리이다. 그리고 무용총에 나타난 채머리는 머리를 뒤로 내린 형태의 머리로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들의 일반적인 머리모양이다¹⁹⁾.

쪽머리는 쪽을 뒷통수에 낮게 트는 양식이다. 쪽은 자기 머리카락이나 다른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뒷머리에 드리운 것으로 비녀로 고정시킨다.

고구려의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신라의 여성들도 북계라는 쪽머리를 하고 있었고, 백제의 여성들이 쪽머리를 했다는 기록은 '주서'에 나온다. '편발반어수후(編髮盤於首後)', 즉 '편발해서 머리 뒤에 서린다.'고 했는데 이는 곧 쪽머리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각저총에 있는 여인과 쌍영총에 있는 여인들 중엔 뒷머리를 낮게 드리운 머리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곧 쪽을 하고 있는 머리라고 볼 수 있다.

건괘에 대해서는 '25사'중 '구당서'에는 고구려조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25사'중 '구당서'에는 고구려조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부인수가건괘(婦人首加巾幘))고구려의 부인들은 머리에 건괘를 쓰고 있다는 뜻이다.

고구려의 여인들은 건괘 또는 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외출도 하고, 집에서 손님도 맞이했다. 삼실총과 각저총(그림14)의 주인공 부인들이 착용했는데 수건처럼 머리를 둘러싸서 머리 위까지 다 씌운 것으로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많이 사용했던 것 같다.

건괘는 가발로 만든 머리 장식품으로 건괘를 사용할 때는 모자처럼 머리 위에 얹는 것으로,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에 많다. 그동안 건괘를 머리수건이라고 하였으나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진다.

각저총을 비롯한 여러 무덤에서 보이고 있는 대로 여인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수건이 아니라 장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신, 고춘명 공저로 되어있는 '중국 역대 부녀 장식'에 건괘는 일종의 가계(假髻)라고 그 용도가 밝혀져 있으며 한나라 때 부인들이 착용하면서 후대에 전해진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한자 건괘(巾幘)은 '수건 건'자에 '머리장식 꺾'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한자가 '건괘', '건국', '건권'등 여러 종류로 표기되어 있다.

단순히 수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벽화 속의 여인들이 대부분 상류층 여인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각저총의 여인들은 무덤 주인공인 귀족의 부인들로 보인다. 신분상으로 볼 때 수건은 맥락이 닿지 않는다. 또 실내에서의 모습이 대부분인데 농경사회였던 고구려에서 주로 밖에서 일할 때 착용했던 머릿수건을 실내에서 활동할 때 하고 있었을 리가 없다고 본다.

한편 수산리 벽화에 있는 시녀의 머리모양과 쌍영총에서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세 여인의 머리모양은 같은 것으로 이들은 모두 수건같은 띠로 머리를 둘러맸는데 이 띠 역시 건괘와 마찬가지로 수건이 아니라 머리를 장식하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본다. 두 무덤 속의 여인들은 일단 의상이 같으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름치마를 입었다는 점이다. 주름치마는 중국남조시대에 보였던 것으로 그리 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두 벽화 속의 여인들 중 수산리 시녀들의 머리모양은 윤곽만 나와 있어 마치 반환계의 윤곽처럼 보이고, 쌍영총의 여인들은 머리띠를 두른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수산리 시녀들이 머리띠를 두른 것으로 보는 이유는 쌍영총 여인들의 머리모양을 윤곽만 가지고 보게 되면 수산리 시녀들의 머리모양과 똑같기 때문이다. 이런 비교는 옷차림이 똑같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수산리 시녀들의 머리 윤곽을 반대로 쌍영총 여인들과 비교해 보아도 거의 흡사하다.

이는 건픽처럼 머리 위에 쓰는 형의 장식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머리띠처럼 둘러서 머리에 헤어밴드처럼 멋을 내는 효과를 내기도 한 것으로 보여 진다²⁰⁾.

고계(高髻)는 가चे머리라 하여 두발을 머리 꼭대기에 모아 묶은 후, 가발을 사용하여 타원형의 머리 태를 만든 형태로 안악 3호분의 여자 주인공의 머리가 대표적이다.

고계 중 힐자계는 벽화에서 보아도 형상 자체가 화려할 뿐만 아니라 모발이나 구슬, 꽃가지 모양으로 늘어뜨린 장식품들로 인해 매우 위엄 있고 아름답게 보인다. 이 머리모양은 일본에도 전해졌는데 그곳에서는 환상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고대 중국 복식사'는 부연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주석보 선생이 쓴 '고대 중국 복식사'에 의하면 안악 3호분에서 볼 수 있는 부인의 머리는 진나라의 힐자계라고 한다. 이 책에는 동수 부인의 머리모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안악 3호분의 부인 머리를 아예 중국의 머리모양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관련 기사를 그대로 옮겨보면 <부인결발 계기성 이증급속기환 명알힐자계시자궁 중천하화지 (婦人結髮 髻既成 以繪急束其環 名曰 擲子髻 始自宮中 天下化之)>, 즉 '이 머리 모양은 늘어뜨린 형상으로 만든 힐자계라고 한다. 생각해 보면 이 머리모양은 진나라 혜제 때 있었던 것인데 부인이 머리를 만들 때 계를 먼저 만들고 병주 끈으로 고리 부분을 단단하게 묶는 것으로 궁중에서 시작하여 세상에 퍼진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고 소개한 것이다.

안악 3호분의 시녀의 머리는 주인공부인처럼 머리를 높이 올린 다음 태를 두르기도 하고, 여러 가닥으로 된 가체를 머리 위에 얹어 본머리를 끈으로 고정시킨 형상을 하고 있다. 주인공부인의 머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태에서 양쪽 아래로 크게 흘러내리게 한 두 가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인면에 나뭇가지 모양으로 늘어뜨린 장식품이 주인공부인에는 있고, 시녀에는 없다. 아마 이 부분은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주방에서 일하는 여인이나 우물가 <그림22>, 푸줏간, 방앗간<그림23, 24>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머리 모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즉

이곳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낮은 계층의 여인들일 텐데 힐자계와 유사한 머리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체를 높이 올리고, 고리형의 태를 두르고 붉은색 끈으로 묶기도 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힐자계는 신분에 따라 꾸미는 방식이나 장식품에 있어서 차이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신분을 떠나 명칭만으로 볼 때에 그 의미 그대로 마치 뽑아내듯이 늘어뜨려서 만들어진 머리모양이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다²¹⁾.

고구려 여자들의 머리모양은 이렇듯 남자와 달리 매우 다양했으며 머리장식은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 달랐다. 귀부인들은 가발을 사용해 머리모양이 풍성하게 보이도록 한 흔적이 있으며 머리를 묶는 끈과 장식 또한 화려했다. 신분이 낮은 시종이나 서민들은 건을 착용했으며 남자들과 달리 흰색의 건을 착용했다. 또 일부 지역에선 방한용으로 털모자를 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3. 안악3호분의 머리모양

안악3호무덤은 4세기 중엽에 건설된 고구려의 돌칸흙무덤으로서 고구려벽화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풍속도벽화의 제재(題材)도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다.

안악3호분의 머리모양을 고구려 고분벽화(조선일보사, 1985년)와 도판설명을 참고로 유추해 보기로 한다.

인물풍속도를 주제로 한 벽화가 벽면과 천정에 가득 차있다. 안악3호분에 나오는 인물들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을 위시하여 2명의 후궁과 시녀, 시종문무관, 우물가의 여인, 행렬도의 기마인물, 개마기병 무사, 보병, 의장기수, 시녀, 기마무관, 기마고취악대, 무녀 등의 인물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때로는 박락이 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안악3호분에 나오는 인물들의 머리모양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1) 남자주인공 (앞 간 서쪽 곁간 서쪽 벽)

남자주인공은 오채의 비단옷을 입고 있으며 넓



〈그림15〉 여주인공, 안악3호분 무덤,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1985), p.5



〈그림16〉 후궁, 안악3호분 무덤,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5), p.5



〈그림17〉 시녀, 안악3호분 무덤,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5), p.5



〈그림18〉 장하독, 안악3호분 무덤,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1985), p.6

고 길게 생긴 얼굴과 곱게 뺨은 팔자수염이 위엄 있는 풍모를 잘 나타내고 있고 머리에는 흑색의 책 위에 흰색으로 만든 덧관을 쓰고 있다. 관의 앞이마 부분에는 금색의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관의 끈이 귀의 뒷부분으로 내려와 턱에서 묶어져 옷고름위에 연결되어 있다. 끈의 끝부분은 큰 단추 모양의 화려한 장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중국의 무관의 경우 큰 관에 연결된 끈들은 5촌(약 15cm)으로 제한하였고, 중국 해문관 등은 매우 성근 사(紗)로 만든 덧관을 써 그물로 표현하지만, 고구려에서는 고운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악3호분의 백라관은 그물로 표현되지 않았다.〈그림7〉

2) 여주인공 (앞 간 서쪽 결 간 남쪽 벽)

호화로운 장방의 좌상에 앉아있는 왕비의 그림이다. 3명의 시녀들이 왕비의 시중을 들어주고 있다. 아름다운 비녀와 머리꾸미개로 화려하게 장식

한 모습은 왕비의 품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풍만한 얼굴과 눈초리가 약간 오른 가느다란 눈매 등 개성적인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

여주인공의 머리모양은 가발을 두른 것으로 당(唐)의 금은 비녀와 보요 장식을 한 보계(寶髻)로 보기도 하며, 힐자계(纈子髻) 또는 환상계(環狀髻)로 보기도 하며, 환계(環髻)로 보기도 한다. 힐자는 군데군데 묶었다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늘어뜨린 장식이나 크게 흘러내리게 한 장식으로 만든 모양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좌우로 술을 늘어뜨리고 가발로 된 머리를 높이 올린 다음 고리처럼 생긴 틀을 가체 안으로 통과시켜 연결하고 여기에 각종 구슬과 보석장식 등으로 마무리했다.〈그림15〉

3) 후궁: 힐자계, 환계

여주인공의 왼쪽에는 손기발모양의 부채를 손에 쥔 시녀와 팔장을 끼고 서 있는 시녀가 있다. 후궁으로 생각되는 옆의 두 여인은 가발이 조금 작고 양옆의 머리장식이 없다. ‘고계운환(高髻雲環)’이라는 기록이 바로 이런 머리모양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귀족여자는 금, 은, 주옥으로 만든 비녀와 두식으로 그들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었다. 가발로 된 머리를 높이 올린 다음 고리처럼 생긴(조선시대 띠구지처럼 타원형의 머리묶음) 틀을 가체 안쪽으로 통과시켜 연결하였다.〈그림16〉

4) 시녀

여주인공의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향료를 쟁반위에 들고 서 있는 시녀가 있다.

시녀의 머리모양(힐자계, 환계) 역시 가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머리를 높이 올린 다음 틀을 두르기도 하고 여러 가닥으로 된 가체를 머리 위에 얹어 본 머리에 고정시킨 형상을 하고 있고 늘어뜨린 장식이 없다.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그림17〉



〈그림19〉 의장기수, 안악3호분 무덤, 고구려고분벽화, 조선화보사(1985), p.22

5) 시종 문무관 책개 책

왕의 시종을 드는 시종 문무관들이다. 앞에서 있는 인물은 홀과 붓을 쥐고 왕의 분부를 기록하고 있는 듯하다. 앞쪽의 인물에는 〈기실(記室)〉이라는 붉은 글이 씌여져 있다. 〈진서(晉書)〉 직관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의하면 이 벼슬이

름은 왕궁의 벼슬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시종문무관이 쓰고 있는 책은 앞부분이 모자의 테보다 한단 높고 뒷부분은 앞부분 보다 한층 높게 갈라지면서 앞부분으로 구부러진 형태이다. 『후한서』에 대가, 주부는 책을 쓰고 소가는 절풍을 썼다고 하니 책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사용한 것이다.〈그림〉

6) 장하독 (앞 간 서쪽 왼쪽 벽)

왕의 호위무관인 장하독(帳下督)〈그림18〉이다. 앞부분이 평탄하고 뒷부분이 뾰족하게 솟은 소위 〈책(幟)〉이라는 머리쓰개를 쓰고 긴 칼을 잡고 서 있다. 바지와 저고리를 입었고 저고리에는 띠를 동여매었다. 이 무관 그림의 윗부분에는 연나라 망명자인 동수에 관한 목서가 있다. 장하독은 왕궁의 호위무관의 벼슬이름이다.

7) 부월수 (앞 간 남벽 동쪽 구석 아래 단)

도끼를 든 무사(그림2)의 그림인데 앞간동벽 하단에도 그려져 있다. 이들의 옷차림은 긴 저고리에 바지를 입고 허리에는 띠를 띠었다. 이것은 장하독 그림의 인물과 똑같은 것이다. 다만 옷깃, 옷자락, 소매 끝에 붉은 전을 두른 점이 다를 뿐이다. 또한 긴 옷고름이 달린 저고리를 입은 인물도 있어 조선에서 저고리에 옷고름을 다는 풍습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도끼는 당시 전투를 할 때에 중요한 공격무기였

다. 회랑의 대행렬도에도 도끼를 든 대열이 왕의 행차를 호위하면서 행진하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부월수의 머리모양은 장하독의 책과 비슷하다.

8) 의장기수 (앞 간 남벽 동쪽 웃 단)

앞에 있는 4명은 긴 두루마기에 띠를 동여매고 작은 기발을 들고 있다. 뒤에 있는 3명은 저마다 색이 다른 바지저고리를 입었고 각종 의장구를 가지고 섰다. 3명중 복관의 인물이 허리에 돈띠를 맸는데 그 모습이 한결 눈에 띈다. 맨 끝에 선 인물이 들고 있는 것은 햇볕을 가리기 위한 박쥐양산이다. 이 의장기수 인물의 곁에 〈전리〉라는 붉은 글이 있다. 의장기수의 머리모양은 시종문무관의 책과 비슷하다.〈그림19〉

9) 수박(앞간동쪽웃단)

손치기는 권법의 한 종류로서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려눕히는 격투기이다. 이 그림은 다른 벽화에 비하여 예술적 과장이 풍부하고 회화적인 해학성이 풍기는 점에서 이채를 띠고 있다.

삼무를 중요시하는 고구려에 있어서 손치기는 대중들 속에 널리 성행한 경기였음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그림이 춤무덤(집안)에도 있다. 서역인으로 보이는 사람의 머리모양은 위쪽에서 하나로 묶은 뿔치모양의 상투로 보인다.

10) 뿔나팔 (앞 간 남벽 서쪽 웃 단)

뿔나팔은 다른 고구려 무덤 벽화에도 자주 나타나는 악기의 하나로서 왕족이나 귀족의 의식에 없어서는 안 될 악기였던것 같다. 형태가 분명하지 않지만 뿔나팔을 부는 사람의 머리모양은 머리위쪽에서 하나로 묶은 모양으로 보인다.

11) 부엌 (앞 간 동쪽 걸 간 동벽)

역원근법으로 그려진 기와집에서 3명의 여인이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은 시루앞에



〈그림20〉부엌, 안악3호분무덤,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9), p.13



〈그림21〉복위십자계, 중국고대복식사, 중국출판사. 주석보 (1983), p.164



〈그림23〉방아간, 안악3호분무덤,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9), p.20



〈그림22〉행렬도, 안악3호분무덤,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9), p.22



〈그림24〉우물, 안악3호분무덤,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9), p.19



〈그림25〉방아간, 안악3호분무덤,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화보사 (1989), p.20

12) 우물 (앞 간 동쪽 걸 간 북벽)

지난 시기 조선의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용두레 우물의 그림이다. 다양한 물항아리에 끼여서 마소용의 구유도 볼 수 있는데 통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서 최근까지 일상생활에서 쓰이곤 했다. 우물가에 서있는 올린머리의 여성의 곁에는 <아광(阿光)>이라는 붉은 글이 씌여져 있다. 우물가에서 일하는 여인들의 머리모양은 힐자계와 유사한 가체를 높이 올리고 고리형의 테를 두르기도 했으며 붉은 색 끈으로 묶기도 했다.〈그림24〉

13) 방앗간 (앞 간 동쪽 걸 간 서쪽 북쪽 벽)

조선에서 예로부터 내려온 밭 방아의 역사를 말해주는 벽화이다. 이 밭 방아는 이웃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는 세 나라의 독특한 방아이다. 밭 방아를 찧고 있는 여인과 키질하고 있는 여인도 올린머리를 하고 있으나 왕비와 측근시녀들의 머리와는 약간 다르다. 고구려 여성들의 머리모양이 매우 다양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서 흥미를 끈다.〈그림23, 25〉

14) 행렬도 (회랑동 벽 모사)

이 행렬도는 벽화의 규모와 복잡하고 다채로운 내용으로 하여 고구려 벽화무덤 중 최대의 벽화이다. 벽화의 남쪽 마주보아서 오른쪽(은(제법 선명하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으며 북쪽

서서 바른손에 사지술을, 왼손에는 막대를 들고 무엇인가를 짜내고 있다. 이 여인의 머리위에는 <아비(阿婢)>라는 붉은 글이 씌여져 있다. 다른 한 사람은 옆방에서 갈퀴발이 달린 소반위에 그릇을 두 줄로 쌓아 올리고 있고 또 한사람은 부뚜막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

부엌 여인들은 머리를 올려서 2개의 환으로 빚은 모양으로 복위의 십자계와 같은 모양이다. 이것은 위진시대의 머리모양과 비슷하다. 복위의 십자계〈그림21〉와 안악 3호분의 주방에서 일하는 시녀의 머리모양은 동일한 형태이며, 집안지역보다 평양지역의 벽화에 그려진 여인의 머리모양이 크고 화려하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머리모양에서 주변국가와의 교류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 있다고 보여진다.〈그림20〉

끝에 이르러서는 인물과 의장구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실되고 있다. <그림22>

행렬도는 소수례를 탄 왕을 호위하는 중배와 그 앞을 가는 전배만을 그리고 있다. 행렬의 구성으로 보아 생략된 후배까지 합하면 500명 규모의 대행렬이었음을 쉬이 가늠할 수 있다. 보병들과 개마무사들까지 정연히 행진하고 있고 왕이 탄 소수례의 뒤쪽에는 의장기수, 시녀, 기마무관, 기마고취악대가 열을 이어간다.

소수례의 앞에는 짧은 기발을 든 기수들을 그렸다. 수례를 끄는 소의 바로 앞을 걸어가는 사람도 기발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검은색 바탕에 <성상번(聖上幡)>이라는 붉은 글이 희미하게나마 보인다. 양손에 털개를 진 두쌍의 무녀가 춤을 추면서 뒤를 이어가고 있다²²⁾. 행렬도에는 4명의 여인들이 머리카락을 3등분하여 정수리와 양옆에서 하나씩 묶었고 붉은 색 땀기로 묶어 고정시킨 후 나머지는 늘어뜨렸다.

안악3호분에 나타나는 머리모양을 정리해보면,

백라관: 안악3호분 무덤 주인의 관모로 고구려 왕만이 쓴다는 백라관이다.

책(평상책): 모자 뒷부분의 높이가 앞부분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뒤쪽이 높이 솟아 오른 모자이다.

개책: 모자 뒷부분의 높이가 솟아 있으면서 솟은 부분이 두 갈래로 나뉜 채 앞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는 모자다.

안악3호분 여주인공과 시녀는 머리모양을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 가발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붉은 끈으로 머리를 묶고 여러 가지 머리꽃이를 한 화려한 모습이다.

고리튼머리(환계)는 머리카락을 위로 올려서 둥글게 말은 형식으로 고리의 모양의 홀고리, 짝고리, 세 고리 등이 있다. 고리튼머리와 얽은머리는 머리의 중심에 올려 틀었으며 고리튼 머리는 틀어 올린 머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고리의 중간이 비어 있는 모양으로 둥근 고리가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머리를 얽은 후에 가발이나 비단자락으로 크게 고리를 만든 것으로 당시 고구려 궁중에서 유행하던 머리형식의 하나이다. 안악3호분 여주인공은 높게 올려 고리를 틀었으며 시녀의 머리 또한 여러 가닥으로 머리를 틀어 올리고 남은 부분은 붉

은 끈으로 묶고 고리를 튼 모습이 보인다. 안악3호분 벽화에 이런 종류의 머리모양은 주인과 시녀 등의 부녀자들에게서 보이므로 신분의 상하에 구애받지 않은 머리모양인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머리모양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으며 머리모양과 복식은 그 시대의 역사성과 생활상을 말해주는 기본적인 척도중의 하나이다.

인류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어온 머리모양은 복식과 함께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하여왔다.

본 연구는 4-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생활풍속도를 위주로 머리모양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인물풍속도를 주제로 한 안악3호분을, 머리모양을 중심으로 복식과 함께 고찰하고 안악3호분의 무덤 주인공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역사와 중국 문화가 고구려에 미친 영향 등을 참고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안악3호분은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고구려 벽화무덤으로 357년에 축조되었다고 한다. 벽화에는 생활풍속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인공이 살았을 때의 생활모습을 표현하였다. 백라관을 쓴 왕으로 보이는 무덤 주인공과 고계를 장식한 왕비로 보이는 여자주인공이 있다. 장하독과 목서가 있으며 부엌, 방앗간, 마굿간, 외양간, 차고 등이 있으며 성상번기를 앞세운 대행렬도가 있다.

고구려 벽화 고분은 크게 평양, 안악지역과 집안, 환인지역으로 나눈다.

생활풍속이 주체인 초기 평양지역 고분벽화인물들은 신분과 계급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의 몇 배 혹은 몇 분의 1 크기로 그려지며 모자와 머리모양, 입은 옷의 무늬와 빛깔이 다르다. 안악3호분의 머리모양을 고찰하기 위해서 4세기전후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다.

미천왕의 낙랑군과 대방군 평정(311~314년) 331년 고국원왕의 즉위, 342년 모용선비(전연)의 고구려 침공, 미천왕비(주씨왕후)가 모용선비에 포

로로 잡혀가고 미천왕의 시신까지 파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 고국원왕 25년(355년) 주왕후 귀국, 357년 안악3호분 축조 등, 머리모양 연구를 위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다.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복식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복식은 그 시대가 갖는 역사적인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식은 정치적인 특성뿐 아니라 사회와 경제적인 요소를 내포하며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적인 가치기준까지 함께 담겨있다.

4세기 중엽 안악지방은 고구려의 확고한 통치 체계가 서 있는 후방이었다. 이 지역은 고구려에 편입되기 이전 중국 한나라의 편제하에 있었고 고구려에 편입된 후에도 고구려와 문화적인 전통을 달리하는 토착호족세력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벽화의 인물들에서 보이는 삼, 유, 포는 맞섬에 소매와 통이 넓은 중국계 복장을 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고구려 복식문화는 북방계 문화의 바탕위에 중원계 복식요소가 일부 가미 되는 방식으로 그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이며, 이는 중국의 낙랑군이 고구려화 되기 전의 모습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계 유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정치적 영향으로 보여 진다. 어쩌면 문화적 측면에서 평양지역은 평양대로, 집안지역은 집안을 중심으로 서로 고유색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지역에서 보이는 외래복식이 안악3호분에 나타나는 연유를 살펴보고 이를 복식사적 배경으로 살펴보았다.

안악3호분 머리모양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해 본고는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해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검토했으며 남녀 모두 신분에 따라 머리모양과 장식이 달랐으며 그 속에는 고구려의 특색과 멋이 스며들어 있었다. 남자의 머리모양은 대부분 관모를 착용했고, 왕은 백라관, 대가는 책을 쓰고 소가는 절풍을 쓰도록 한 것으로 위계상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커다란 상투, 호미모양의 상투, 높은 상투 등이 있었으며 불교의 승려나 도교의 도사 같은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민둥머리의 모양을 볼 수 있다.

여자의 머리모양은 가발을 이용하여 높이 올린 고계와 가발 주위를 둥근 고리모양으로 만든 환계(힐자계)와 엷은머리, 중발머리, 푼기명머리, 쌍상투머리, 채머리 등이 있으며 신분에 따라 귀부인

들은 높은 머리를 하고 미혼여자나 신분이 낮은 여자는 낮은 머리를 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었다. 고구려의 여인들은 머리에 건 또는 건귀를 썼다.

안악3호분의 머리모양은 고구려 고분벽화(조선 일보사)와 도판 해설을 참고로 하여 유추해 보았다. 남자들은 대부분 관모를 썼으며 남자주인공의 백라관은 무덤 주인의 신분을 짐작케 한다고 보여졌다.

안악3호분은 다른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고구려 특유의 머리모양과 달리 고계의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 고유한 형태보다 외래양식의 영향을 받아 가발을 덧붙이고 크고 화려하게 빚는 모양이 많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머리모양이 선호되었으며 복위나 위진시대의 머리모양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주변국가와의 교류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신분이나 결혼유무에 따라 장식과 모양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크고 화려한 고계는 높은 지위의 상징이기도 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머리모양이 선호된 것은 당시 고구려가 경제적으로 풍요하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음을 말해준다.

중국 한나라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낙랑군을 설치하여 400년간 지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 문화에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낙랑군과 대방군을 고구려가 지배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묵인해주는 고구려의 정치적 배려로 한동안 이런 머리 모양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

안악 3호분의 머리 모양이 다른 고분벽화에 보이는 고구려 특유의 머리모양과 다른 점이 이런 역사적·정치적 이유에서 라고 볼 수 있다.

안악3호분에서 보여 지는 머리모양은 중원계 문화가 고구려화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문화적, 지역적, 역사적 특성이라고 본다. 또한 고구려의 왕이 썼다는 백라관은 안악3호분 머리모양과 관모에 대하여 역사적인 연구와 함께 앞으로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고구려 머리모양은 그것을 창출한 민족이나 사회의 미의식, 기호, 창의력이 집약된 역사의 산물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 창조에 밑거름이 되는 것

이다. 따라서 현 시대의 머리모양은 옛것을 외면하는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철저한 섭렵과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머리모양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머리모양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현대적인 머리모양의 아름다운 창출을 위한 것이므로 전통적 머리모양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전통적인 머리모양이 현대적인 머리모양에 어떻게 적용하여 대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1) 임기환 (2005).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통천문화사, pp.10-111.
- 2) 김용만 (1998). *고구려의 발견*. 바다출판사, pp.151-161.
- 3) 정완진 (2005).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고려 대학교, p.255.
- 4) 박선희 (2004).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옷차림과 문화*. 고구려 연구, p.19.
- 5) Ibid., p.23.
- 6) Ibid., p.25.
- 7) Ibid., p.26.
- 8) 박선희 (2003). *고대 한국의 신*. 한국고대 복식, pp.529-531.
- 9) 전호태 (1999).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잎출판사, p.105.
- 10) 한국사5 (1996). *삼국의 정치와 사회*.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p.151.
- 11) Ibid., p.149.
- 12) 조은하 (1993). *한국고대금관의 조형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2.
- 13) 공석 (1998). *안악3호분 주인공의 관모에 대하여*. 고구려 연구회, p.245.
- 14) 김미자 (2003).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 복식에 관한 연구*. 고구려 고분벽화. 고구려 연구, p.513.
- 15) 석주선 (1998). *한국의 미*. 국립중앙박물관, p.119.
- 16) 전호태 (1999).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풀잎출판사, p.106.
- 17) 박선희 (2003). *고대 한국의 관모*. 한국 고대 복식, pp.241-249.
- 18) Ibid., pp.276-289.
- 19) 류지원 (2000).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두식의 조형양식*. 한국미용학회지 6(3), pp.583-596.
- 20) 손미경 (2004). *한국여인의 발자취*. 이환출판사, pp.113-114.
- 21) Ibid., pp.67-68.
- 22) 주영현 (1998). *주요 고구려 벽화 무덤의 주인공 무덤에 대하여*.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일보사. pp.48-50.